



제742회 큐레이터와의 대화(2023년 9월 13일)

## 백제의 공방工房

윤용희, 106호 백제실 18:00~18:30

백제는 일찍이 마한과 수공업 생산기술을 공유하면서 철기류를 비롯하여 토기와 기와 같은 토제품, 금·은·동의 비철금속 및 유리 등 다양한 재질의 물품을 생산하였습니다. 『삼국지三國志』 한전韓傳에는 “구슬을 귀하게 여겨 옷에 꿰매어 장식하기도 하고, 목이나 귀에 달기도 하지만, 금·은과 수놓은 비단은 보배로 여기지 않는다.” 고 하였습니다. 『위서魏書』 백제百濟전의 “의복과 음식은 고구려와 같다.” 는 구절과 같은 책 고구려高句麗전의 “공식적인 모임에서는 모두 수를 놓은 비단 옷을 입고 금·은으로 치장을 하였다.” 는 기록은 시기에 따른 복식의 변화상을 보여줍니다.

백제 초기에는 철을 생산하는 제련製鍊보다는 철 소재素材를 단조鍛造하여 철기를 생산하는 단야鍛冶가 중심이었지만 점차 철 산지產地에서 직접 철을 생산하여 중간재인 덩이쇠(鐵錠)의 형태로 공급하는 단계로 발전하였습니다. 철 생산 공정은 매우 복잡하고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생산된 덩이쇠는 화폐로도 사용되었으며, 무덤에 끼묻거리로 들어가기도 하였습니다.

토기와 기와의 생산은 초기에 받침모루(內拍子)와 두들개(外拍子)를 사용하는 타날성형打捺成形 기법을 공유했으나 기와전용 제작도구인 와통瓦桶이 개발된 이후에는 독립된 생산체계로 운영되었습니다.

금과 은은 도가니에 넣고 가열하여 용해하는데, 부여 관북리 유적이나 익산 왕궁리 유적의 발굴 사례를 보면 순금보다 금+은 혹은 금+은+동 합금인 경우가 많이 확인됩니다. 금 순도가 높은 것은 미세한 가공이 필요한 금 구슬 등에 주로 사용되고, 순도가 낮은 것은 금 못이나 금실과 같은 부수적인 제품에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금제품 제작에는 금판을 오려내는 투조透彫, 표면에 무늬를 새기는 조금彫金, 금 알갱이를 붙이는 누금鑲金, 새긴 무늬 홈에 금실을 끼워 넣는 입사入絲 등 다양한 방법이 사용되었습니다. 청동에 금을 입히는 방법에는 수은아말감법과 금박金箔을 씌우는 방법이 있는데, 불상이나 향로 같은 기물에는 수은아말감법을 사용하였습니다.

동은 구리(Cu)에 주석(Sn)이나 납(Pb), 아연(Zn)과 같은 다른 금속을 섞어서 청동(Cu+Sn, Cu+Sn+Pb)이나 황동(Cu+Zn) 제품으로 생산하였는데, 성분 비율에 따라 다른 도가니를 사용하였습니다.

우리는 주로 목걸이 등에 꿰어 사용할 구슬(beads)을 제작하는 기술이 발달하였습니다. 초기에 토제거꾸집과 철침鐵針을 사용하는 방식(moulding기법)이 사용되었으나 점차 용융된 상태의 유리를 금속 막대 주위에 감아 말아서 만드는 방식(winding기법)과 금속막대에 묻은 유리를 막대가 감싸지도록 길게 잡아 늘려 유리관 상태로 만든 후 적당한 크기로 잘라 만드는 방식(drawing기법)이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유리는 주성분인 규소(Si)에 포함되는 성분 따라 다양한 빛깔의 제품을 만들 수 있는데, 백제에서는 소다(Na)유리와 납(Pb)유리가 많이 생산되었습니다. 소다유리는 청색뿐만 아니라 황색, 적색 등 다양한 색상을 가지는데, 첨가되는 산화알루미늄 함량이 높으면 적갈색을 띠게 됩니다. 진·변한지역은 푸른색 계통의 유리구슬이 성행하는 반면 마한지역은 적갈색 유리구슬이 대부분이어서 지역적인 차이가 나타납니다. 부여 쌍북리 유적과 익산 왕궁리 유적과 미륵사에서 나온 유리 도가니에서는 납유리가 검출되었는데, 6세기 납유리는 철기시대의 대롱옥 등에 사용한 푸른빛의 납-바륨(Ba) 유리와 달리 녹색을 띠며, 주로 불교의 사리용기 제작에 사용되었고, 통일신라까지 계승되었습니다.



그림 1. 단야구鍛冶具, 무안 사창리



그림 2. 금실(金絲), 부여 능산리고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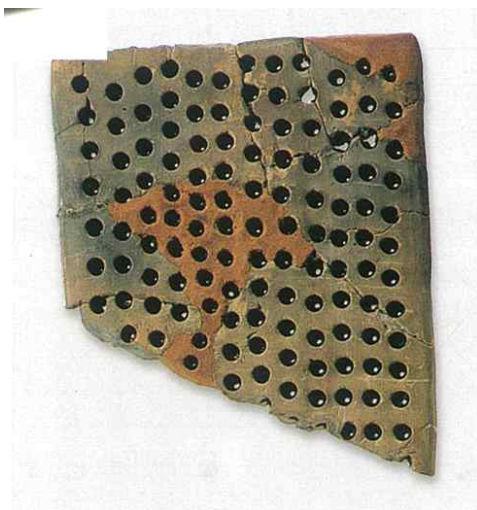


그림 3. 유리구슬 거꾸집, 하남 미사동



그림 4. 토제 도가니, 익산 미륵사지



## 집모양 토기- 살림집일까, 곳간일까?

최경환, 121호 특별전시실 18:00~18:30

집모양 토기[家形土器]는 실제 집을 본떠 만든 토기로, 신라와 가야의 건물 구조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자료입니다. 모양은 크게 두 종류, 즉 살림집과 곳간으로 나뉩니다. 대부분 안은 비어 있고 액체를 담는 굴뚝모양 깔때기와 액체를 따라내는 주둥이가 붙은 형태입니다.

### ○ 대구 현풍 출토 집모양 토기(그림1)

사다리가 있는 출입구 쪽에서 보면 맞배지붕이고, 반대편에서 보면 모임지붕인 집모양 토기입니다. 용마루는 맞배지붕에서 뚜렷하다가 모임지붕으로 갈수록 밋밋해집니다. 지붕면에는 별다른 무늬가 없지만 지붕을 눌러주는 새끼줄 또는 나무틀이 표현되어 있어 이엉이나 나무판자를 엮은 지붕을 묘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토기에 대해 살림집으로 보는 의견과 동물 우리로 보는 의견이 있습니다.

### ○ 창원 다호리 B-1호 무덤 도랑 출토 집모양 토기(그림2)

지붕 부분과 벽체 및 기둥 부분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맞배형인 지붕에는 가로 2줄, 세로 2줄의 점토 띠가 붙어있어 초가지붕이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용마루와 지붕 가장자리 내림마루에 점토 띠가 붙어있습니다. 지붕이 만나는 부분에 도리와 대공 점토 띠가 달렸습니다. 곡물을 보관한 곳간을 본뜬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림1. 대구 현풍 출토 집모양 토기



그림2. 창원 다호리 B-1호 무덤 도랑 출토 집모양 토기와 복원품





제742회 큐레이터와의 대화(2023년 9월 13일)

## 근대 문예인, 위창 오세창 葦滄 吳世昌

허문행, 202-4·5호 서화실 19:00~19:30

위창 오세창(1864~1953)은 3·1운동에 참여한 애국지사이자, 우리 서화의 수집·감식·연구에 힘쓴 문예인 文藝人입니다. 이번 전시는 오세창 서거 70주년을 기념하여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을 중심으로 그의 생애와 예술 활동을 조명했습니다.

### 근대기 다양한 이력을 가지다

오세창은 1864년 역관 譯官 오경석 吳慶錫(1831~1879)의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가업을 이어 16세에 한어(중국어) 역관이 되었으며, 관직에서 물러난 이후 언론인이 되어 애국·계몽 운동을 후원했습니다. 일제강점기 오세창은 민족대표 33인의 한 사람으로 3·1운동에 참여했고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2년 8개월간 옥고를 치렀습니다.

### 서예가 오세창의 필적을 들여다 보다

오세창은 오경석이 수집한 우리나라와 중국의 여러 자료를 토대로 서법 書法을 익혀 독창적인 필체를 선보인 당대의 서예가였습니다. 그는 기와나 청동기 등 옛 기물에 새겨진 글과 그림을 임모하고 예서와 행서로 내용과 설명을 적었으며, 직접 새긴 인장을 찍는 ‘중정와전임모도 鐘鼎瓦磚臨摸圖’의 전형을 확립했습니다. 또한 상형고문 象形古文이나 오세창은 전서 篆書와 예서 隸書로 쓴 많은 작품을 남겼습니다.

### 우리 서화를 연구하고 감식하다.

오세창은 수집한 우리 서화를 정리·연구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근역서회 槿域書彙』, 『근역석묵 槿域石墨』, 『근역서화징 槿域書畫徵』 등을 편찬했습니다. 그의 서화 연구는 선조들의 숨결이 남아있는 유물을 보존하고 계승해야 할 민족의 유산으로 인식하게 하는 계기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집니다. 또한 오세창은 뛰어난 감식안으로 서화를 분석한 글을 남겨 후대 사람들이 그 내력을 알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오세창은 격변의 시기 민족의 계몽과 독립을 위해 힘썼으며, 우리 서화 연구에 힘쓰고 옛 것을 본받고 고증해 세상에 알리고자 한 문예인이었습니다. 오세창의 손길이 남아있는 작품들을 감상하며 문예인 오세창의 모습을 살펴보기 바랍니다.



그림1. 오세창, <상형문자로 쓴 「어·거·주」>, 1929년, 종이에 먹, 중7014, 2005년 국립중앙박물관회 기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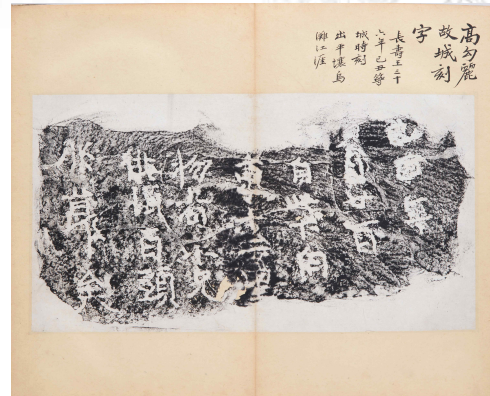


그림2. 오세창 편집, <고구려 각자성석>, 《근역석목》, 20세기, 종이에 먹, 구5321



제742회 큐레이터와의 대화(2023년 9월 13일)

## 15~16세기 백자 문화

이정인, 304호 분청사기 · 백자실 19:00~19:30

15~16세기의 조선은 성리학적 유교 이념을 바탕으로 국가 체제가 정착되어간 시기로, 도자기 문화도 이 같은 시대적 분위기에 따라 분청사기와 백자가 등장해 국가적 제도 아래에서 그 역할과 특징이 갖춰졌다.

고려 말 상감청자 영향으로 제작된 분청사기粉靑沙器는 회청색 그릇(회청사기灰靑沙器)의 표면에 흰 흙을 다양한 방식으로 입혀(분장粉粧) 장식한 도자기를 학술적으로 일컫는 명칭이며, 고려의 청자에서 조선의 도자기로서 이어지는 역할을 했다. 처음에는 상감청자와 비슷하게 꾸며지다가 시기별·지역별로 장식 기법이 바뀌며 16세기 중엽까지 만들어졌다. 특히 나라의 재정 유지를 위해 지방의 토산물을 납품하는 공물貢物의 하나로서 전국적으로 생산되어, 왕실과 중앙 관청에서 쓰였다. 세종(재위 1418~1450) 임금 때 도자기를 생산한 전국의 도기소와 자기소에 대한 위치와 개수, 상·중·하로 분류된 품질 등이 정리되어 『세종실록』(1454년 간행)의 부록인 「지리지」에 그 내용이 수록되었고, 전국에서 발굴 조사된 분청사기가마터는 이 같은 기록과 제도를 뒷받침해 백자白磁 보다 분청사기가 주요한 공납용 도자기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백자는 조선의 사회상에 적합한 도자기로 새로이 떠올랐다. 깨끗한 순백색의 빚깔과 단정한 형태, 과하지 않은 장식은 여러 규범과 의례를 갖추어 절제하는 삶의 태도가 요구된 조선 사회의 분위기에 어울렸다. 세종 연간에는 왕실의 전용 도자기로 선호되었을 뿐만 아니라 명나라의 사신이 조선 왕실에 최상품의 백자를 요청할 정도로 우수한 백자가 제작되어, 점차 왕실에서 대내외용 대표 도자기로서 백자가 정착되었다. 마침내 1467~1468년 무렵 수도인 한양 부근의 경기도 광주 廣州에 나라가 직접 운영하는 관요官窯가 설치되어 전문적으로 백자가 생산되었다. 왕에게 소용되는 진상품과 식사를 담당한 사옹원司饔院이 백자 생산을 감독, 관리해 관요는 ‘분원分院’이라 불렸다. 이는 좋은 품질의 백자를 더욱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서 다양한 기종, 청화백자나 철화백자와 같이 회화성을 살린 고급 백자가 제작되며 조선 백자의 특징이 구체화되었다. 이처럼 관요의 운영으로 전국의 도기소와 자기소뿐만 아니라 제작되던 분청사기도 사라지게 되었고, 15~16세기 무렵 조선의 도자기 문화는 공납제로 관리된 분청사기에서 관요 생산의 백자 중심으로 점차 변화하며 조선 말까지 그 흐름을 이어갔다.